동지기도

일 년 중 밤이 가장 긴 날이 동지입니다. 동지를 기점으로 낮이 점점 길어져 우리 조상들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의미로 삼았다고 합니다.

동지는 태양의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동지에 왕들은 신하들에게 동문지보同文之寶라는 도장을 찍은 달력을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풍속이 이어져 법주사를 비롯한 많은 사찰들에서도 동지에 달력을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선동력夏扇冬曆이라고 해서 윗사람이 하지에는 부채를 동지에는 달력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동지에 사찰에서는 새로운 기운을 통해 부처님께 가정의 행복과 평온을 기원하는 동지불공을 올리게 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1년 불자님들께서도 부처님 전에 자기 자신의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잘못이 있다면 참회하고 나 자신과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일　　시** : 입재 - 불기 2565년 **12**월 **16**일(음 11월 13일)
회향 - 불기 2565년 **12**월 **22**일(음 11월 19일) 동지

■ **동 참 금** : **3**만원 (팥죽용 팥, 찹쌀 공양 사전 접수받습니다.)

■ **동참계좌** : 농협 **403020 - 51 - 010482** (예금주 : 법주사)

■ **문의 및 접수** : 원주실 (043)543-4755

※ 동지에 2022년도(임인년) 달력 나눠드립니다.
※ 인등의 경우 내려달라는 말씀을 안 하시면 기도를 이어 하게 됩니다.
인등을 내리실 분은 반드시 원주실로 연락 바랍니다.





유네스코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法住會報

www.beopjusa.org 2021|12

부처님 말씀 좋은 벗 나쁜 벗 / **이달의 법문** 冬安居 結制 法語 / **주지스님 법문** 서두르는 버릇 / **감로의 글** 법운지 / **걸망메고** 정토사상 / **수행여화** 채국동리지절 / **법주사 소식** / **다도회 합창단원 모집 / 법주사 행사일정** / **동안거 백일기도** / **운 맞이 백일기도** / **삼재풀이** / **명부전 천일기도 봉행** / **약사여래불 천일기도** / **법주사 광명진언기도** / **신묘장구대다라니 독송기도** / **교리강좌 개설** / **동지기도**

좋은 벗 나쁜 벗

좋은 벗은 친구의 잘못을 보면 일깨워 주고,

좋은 일을 보며 마음 속 깊이 기뻐하며,

괴로움에 처했을 때 서로 버리지 않으며,

자신에게 이익이 생기면 나누어 주고,

일이 없는 친구에게 일을 알선해 주고,

항상 착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나쁜 벗이란 친구의 소중한 물건을 빼앗으며,

항상 듣기 좋은 거짓말을 하고,

오직 자신의 체면을 생각하며,

잘못된 가르침을 전해 주는 사람이다.

〈선생자경〉



유네스코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法住會報

2021 12 | 통권 359호



2 부처님 말씀 좋은 벗 나쁜 벗

4 이달의 법문 冬安居 結制 法語 법주사 조실 월서 대종사

10 주지스님 법문 서두르는 버릇 정도 스님

12 감로의 글 법운지 두진 스님

14 걸망메고 정토사상 진정 스님

16 수행여화 채국동리지절 현진 스님

19 법주사 소식

20 다도회 · 합창단원 모집 / 법주사 행사일정

21 동안거 백일기도 / 운 맞이 일년기도

22 삼재풀이 / 명부전 천일기도 봉행 / 약사여래불 천일기도

23 법주사 광명진언 기도 / 신묘장구대다라니 독송기도 / 교리강좌 개설

24 동지기도

월간 법주회보 불기 2565(단기4354)년 12월호 통권 359호 / 1989년 9월 7일 등록 (등록번호 충북 라 01005) /제3종 우편물(나)급 인가 / 발행인 · 정도 / 주간 · 현진 / 편집장 · 무경 / 편집위원 · 김경래 / 전화 (043)543-3615 / 팩스 (043)543-3620 / 발행처 · 법주사

冬安居 結制 法語

월서 대종사 법주사 조실



오늘이 동안거 결제를 하는 날입니다.
매년 결제 때마다 엄중 하고도 비장한 각오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만
아직 확철대오廓撤大惡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석 달 동안 기어이 완수해야겠다는 결심과 비상한 각오와 엄청난 용기가 없이는
진실로 오늘을 맞이하는 의미가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성불의 준비 작업이 시작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어찌 보면 커다란 모험이 아닐 수 없고 너무나 도에 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마는
옛 조사 스님들과 부처님들이 모두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생사윤회의 고통을 벗어난 것이
확실한 이상 우리라고 해서 안 될 까닭이 있겠습니까?
오직 여기에는 大忿心, 大勇猛, 大精進 만이 있을 뿐입니다. 모든 속박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대자유를 얻자는 것이 우리들의 염원이라면 하루빨리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대중에게 이르노니 무애장부가 있거든 주저하지 말고 어서 나와 건곤 밖에서 큰 소리로
태평가 한 곡조를 불러 분소紛搔한 이 자리를 안정시켜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결제는 또한 확실히 엄중한 현실입니다.
전미개오轉迷開惡가 성불成佛의 요체要諦일진대 어두운 진구를 탈각하고자 한다면
어찌 용맹스러운 정진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진이 없는 곳에 해탈이 있을 수 없고 생사의 험한 물결을 건너갈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평범하고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석 달이라는 기간을 설정하고 그 정해진
기간 안에 수행해야 할 과업은 진실로 중대하다는 것을 결제 대중은 확실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윤회의 고통을 벗어나고 삼계를 초출하여 대자재大自在 대해탈大解脫 대열반大涅槃을 얻게 되는 것이며
정각을 이루어 영원의 대 생명을 향유할 수 있는 커다란 작업을 성취하는 데 있습니다.
저의 은사이신 金자 烏자 큰스님께서는 늘 말씀하시기를 의정이 맺혀야 한다고 하셨고
의단이 독로해서 성성적적惺惺寂寂한 화두일념話頭一念이 돼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화두가 순수 무잡해서 더 이상 의심이 클 수가 없고 더 이상 간절할 수 없어
타성일 편이 되면 의단이 타파가 되어서 바로 자기 본래면목을 보게 될 것입니다.

生死於是 是無生死
생가가 이것인데 이것이 생사 없는 소식

疑着話頭 如咬生鐵

화두를 의심해 지을 때는 생철을 씹는 것 같이 하라

우리가 수행정진修行精進에 가장 큰 험로가 된 것은 번뇌 망상
혼침 산란심 온갖 잡다한 생각을 극복하기 어렵지만, 초심자는 자세를
똑바로 가부좌 혹은 반가부좌를 하고 이를 꽉 물고 혓바닥을 말아 입천장에
붙이고 호흡을 단전에 두며 시선을 바로 하고
용맹스럽게 화두를 들고 간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제 중에는 수행자 오계만 잘 지켜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행자 오계는 적게 먹고, 적게 자고, 적게 말하고, 책을 보지 말고,
돌아다니지 말라고 했습니다.
혼침, 산란심, 번뇌, 망상 등등 혼침이 사라지면 번뇌 망상이 일어나고
망상이 사라지면 혼침에 빠져듭니다.
정말이지 극복하기 힘들고 어려운 난공불락입니다.
너무 급하게만 해도 안 되고 늦춰서도 안 되는데
거문고 줄처럼 팽팽하게 지혜와 용기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가귀감에는 이 일이 마치 모기가 강철로 된 소에게 덤벼들 듯
덮어놓고 주둥이를 댈 수 없는 곳에 목숨을 떼어 놓고 한번 뚫어 보면
몸뚱이째 사뭇 들어갈 때가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거듭 위에서 말한 뜻을 맺어서 화두를 참구하는 이로 하여금
뒷걸음치지 말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옛 어른이 이르기를

참선하려면 뚫으라.
조사관을!
오묘한 큰 깨침은 마음 길 끊어야지

화두일념으로 객진 번뇌인 망상을 항복 받고 주인공인 자성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자성은 내외명철內外明徹 여정유리내함보월如淨瑜璃內含寶月
투명한 유리그릇에 보배 달을 넣고 본다면 안에서나 밖에서나 투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智는 白日과 같고 慧는 朗月과 같아서 지혜는 항상 명랑하지만,
외부로 진경에 주착하여 망상의 부운개복浮雲蓋覆 함이 되어서 명랑하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如何히 大惡하고 知見이 高明한 것 같아도 實地境界에 있어서 熟眼時에 如前暗黑하면
이는 妄識의 變動이요. 實惡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悟寐一如境地에도 도달하지 못하고서 頓惡見成이라고 自負한다면
自誤 誤人의 大罪過이며 修道過程에 있어서 可恐할 病通이라고 했습니다.
公案을 타파하고 自性을 徹見하면 三身四智를 圓滿證得하고
全機大用이 一時에 現前하고 殺活自在하여 縱橫無盡한 妙法中 妙法인 것입니다.
眞空이면서 妙가 있는 淸淨法身의 眞體를 깨닫는 것입니다.
참선 요지에 허운 말씀은 禪修行에 대한 명확한 목적 선수행에 대한
간명한 先決條件 話頭 話尾에 대한 訟話頭 念話頭 觀話頭 參話頭 念佛是誰 參禪에 대한
先決條件의 간략한 말씀을 짚어 보겠습니다.

歇卽菩提 攀緣萬緣放下一念不生

이 구절의 말과 같이 결과에 이르지 못하면 참선은 말뿐이고 성공할 수가 없다.
참선의 목적은 마음을 밝히고 성품을 보는 것이다.
마음에 오염을 제거하고 자기 성품의 참모습을 실답게 보는 것입니다.
오염이라는 것은 망상과 집착이며 자성은 바로 如來智慧 德相입니다.
다만 여러분과 나는 무량겁 이래로 미혹되어 생사윤회의 바다에 빠져서 오염된 지 오랩니다.
단박에 망상을 벗어나 참된 본성을 볼 수가 없으며 그런 까닭에 참선이 필요 한 것입니다.
참선의 선결 조건은 망상을 없애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망상을 제거할 수 있을까?
부처님께서 설하신 말씀 수도 없이 많지만

歇卽菩提
쉬면 곧 깨닫는다.

쉼만큼 간단한 것을 다시 없을 것이다.
온갖 인연에 생각 망상이 죽 끓듯 해서는 참선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水流竟歸海 月落不離天
흐르는 물은 필경 바다로 돌아가는 것이고
달이 떨어져도 하늘을 여의치 않는다.

戒의 그릇이 튼튼해야 호수처럼 고요한 선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이며
선정의 물결이 고요해야 만이 지혜의 달이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驕慢塵中藏般若 人我山上長無明
교만심과 티끌 먼지 속에 지혜가 감추어지고
아만심의 산봉우리에 무명이 자란다.

輕他不學躭踵老 臥病辛吟限不窮
잘난 척하고 배우지 않고 늙게 되면
병들어 신음하고 한탄만 하게 된다.

오늘 이 자리에 같은 결심으로 모인 대중 여러분은 일치된 한마음 한뜻으로 험하고도
무서운 관문을 돌파하여 해제되는 날 첫 새벽에 모두 함께 성불의 법좌에 빠짐없이
오르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서두르는 버릇

정도 스님 법주사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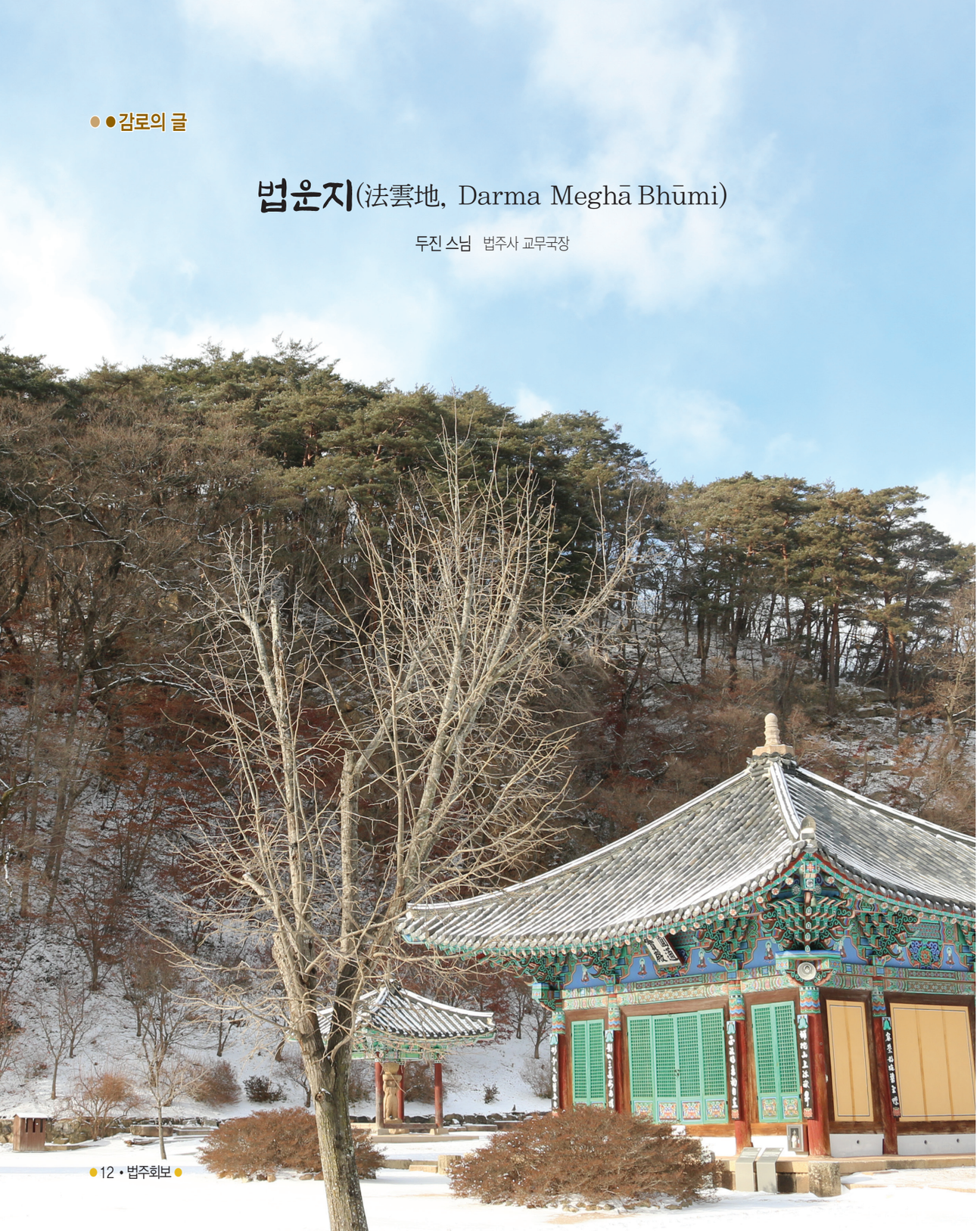
우리나라 사람들의 단점이자 장점으로
항상 거론되는 것이 서두르는 버릇일 것입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도
습관적으로 서두르는 것이 버릇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나 수행에도
서두르는 불자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에 오셔서도
빨리 법당에 가서 자리를 잡으러 서두르고
법당에 앉아서는 기도를 하고서는
서둘러 공양을 하고 집에 가려고 나서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수행이 바로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절에 오실 때만이라도 일부러 느긋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이라도 법당에 가실 때도 서두르지 마시고
속리산과 법주사를 충분히 느끼시고
법당에서 기도하실 때도 서두르지 마시고
기도를 마치신 후에도 할 일을 마친 것처럼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시고 충분히 기도의 여운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법주사가 서두르는 것이 없어지는 장소이기를 바랍니다.



법운지(法雲地, Darma Meghā Bhūmi)

두진 스님 법주사 교무국장



〈지난호에 이어서〉

지난 아홉 달 동안 초지부터
9지인 선혜지까지 법주회보에 기고했다.
이제 마지막 10지인 법운지를 기고하게 되었다.
벌써 10달이 되어가고 있다.
법운지를 끝으로 십지경을 마치려한다.
십지경은 아시는 바와 같이 대방광불화엄경의
중심이 되는 품이며 경이다.
제1지 초지의 보살과 제9지보살들은
아공과 법공을 극복하고, 무상, 고, 무아라는
불교의 3특상을 깨달아 유신견과 계금취견,
그리고 불법승 삼보에 대한 의심이 제거되고 보살이
지녀야할 사무량심, 사섭법, 십바라밀을
원만히 닦아 드디어 여래의 직책을 받는
제10지 보살은 한량없는 백천만억 나유타나 되는
행하기 어려운 행을 능히 행하며,
한량없는 지혜 공덕을 증장하나니
이름이 법운지法雲地에 머무름이 된다.

"법운지法雲地는 일체 모든 부처님 여래의 큰 법의
밝은 비를 받으나 만족함이 없는 연고이니라."

지혜의 구름이 두루 진리의 비를 내리는 경지이다.

"불자여, 이 경지의 보살은 자기의 원력으로
대비의 구름을 일으키고, 큰 가르침의 천둥을 치고,
환히 밝고 두려움 없음을 번갯불로 삼고,
복덕과 지혜를 빽빽한 구름으로 삼고,
갖가지 몸을 나타내어 두루 돌아다니고,
한 찰나에 시방의 백천억 나유타 세계의
티끌 수만큼 많은 국토에 두루 있으면서
큰 가르침을 설하여 악마와 원수를 굴복시킵니다.
또 이 수를 넘어서는 한량없는
백천억 나유타 세계의 티끌 수만큼 많은 국토에서
중생들의 마음이 좋아하는 것에 따라 보배의 비를
내려 중생들의 번뇌 먼지와 불꽃을 소멸시킵니다.
그래서 이 경지를 법운지라고 합니다."

모든 산은 바다에 뿌리를 내리고 있듯이
십지도 또한 부처님의 지혜인 일체 지혜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비유하고,
또 바다에는 열 가지 현상으로 비유하고 있다.

"무엇이 열인가? 하나는 차례로 점점 깊어짐이요,
둘은 송장을 받아 두지 않음이요,
셋은 다른 물이 그 가운데 들어가면
모두 다 본래의 이름을 잃음이요,
넷은 모두 다 한 맛이요,
다섯은 한량없는 보물이 있음이요,
여섯은 바닥까지 이를 수 없음이요,
일곱은 넓고 커서 한량이 없음이요,
여덟은 큰 짐승들이 사는 곳이요,
아홉은 조수가 기한을 어기지 않음이요,
열은 큰비를 모두 받아도 넘치지 않음이니라."

10지 법운지法雲地의 보살이
다른 바라밀을 닦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십바라밀 중에서는 지혜바라밀을 가장 높이 여긴다.
이것으로써 십지경을 모두 마친다.

정토사상 淨土思想

진정 스님 법주사 포교국장

정토사상은 인도에서 대승불교의 발생과 함께 나타나기 시작했다.
약 600부의 대승경전 가운데 정토사상을 설하고 있는 경전이 200여 부에 이른다.
정토사상 계열의 경전 중 대표적인 것은 〈아미타경〉1권, 〈무량수경〉2권,〈관무량수경〉1권의 정토3부경이다.

불교는 원래 스스로 수행하여 깨달음을 이룸으로써 해탈을 성취하려는 자력 구원의 종교이다. 그러나 불교가 대중적인 종교로 발전하면서 부처와 보살의 본원력에 의지해 중생을 구제한다는 타력구원의 사상으로 전환되었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정토사상이다.

정토란 부정잡예不淨雜穢가 없는 청정한 불국토를 말하는데, 정토사상은 인도에서 대승불교의 발생과 함께 나타나기 시작했다.

약 600부의 대승경전 가운데 정토사상을 설하고 있는 경전이 200여 부에 이른다.

정토사상 계열의 경전 중 대표적인 것은 〈아미타경〉1권, 〈무량수경〉2권,〈관무량수경〉1권의 정토3부경이다. 이들 경전에서는 극락정토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과 그곳의 안락함, 그리고 그곳에 왕생하는 방법 등을 설하고 있다.

정토사상의 개요 : 정토사상은 흔히 불교에서 타력신앙他力信仰이라고 불린다.

정토사상의 기원 : 불교는 원래 자신의 힘으로 수행하여 깨달음을 이룸으로써 해탈을 성취하려는 철저한 자력구원自力救援의 종교였다.

그러나 불교가 대중적인 종교로 발전하면서 보편적인 구원의 이념에서 부처와 보살의 본원력本願力에 의지하여 중생을 구제한다는 타력구원他力救援의 사상으로 전환되었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정토사상이다.

이것은 "법에 의지하고 자신에 의지하라"(法燈明自燈明)라는 석가모니의 유언과는 분명히 상반되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토 신앙을 비롯한 여타의 타력신앙은 '자리自利가 곧 이타利他'라는 사상적 토대 위에서 성장한 대승불교의 불가결한 요소인 것이다.

나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이란 아미타불에게 귀의한다는 말이다.

정토계의 경전에서는 아미타불의 서방극락정토 이외에도 여러 정토를 설하고 있다.



동방 아촉불阿閦佛의 아비라제정토(阿比羅提淨土 : 妙喜世界), 미륵보살의 도솔천정토兜率天淨土, 약사여래藥師如來의 유리광정토琉璃光淨土 등이 대표적인 것들인데, 그 가운데 가장 수승殊勝한 것이 바로 아미타불의 서방정토라고 한다. 〈무량수경〉에서 묘사된 서방극락의 장엄상莊嚴相을 보면, 땅과 나무 등이 모두 황금이나 칠보로 되어 있고 무상 정각을 이루려는 무수한 성문聲聞과 보살들이 있다고 한다.

정토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는 '극락'과 '아미타불', '본원本願'이다.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하여 극락정토에 왕생하는 것이 정토 신앙의 요체이다. 왕생은 아미타불의 본원에서 비롯되며 그것은 바로 부처의 본질인 중생을 구제하지 않을 수 없는 동체대비同體大悲의 지혜와 자비가 아미타불의 본원을 통해서 중생에게 회향 되는 것을 말한다.

자리와 이타는 반드시 동시적이어야 하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아미타불은 자신이 성취할 부처의 깨달음이 성불의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중생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제도할 수 없는 것이라면, 깨달음을 이루지 않겠노라는 서원을 세웠다.

본원력이란 바로 이러한 불보살의 이타적 구원의 원력에 의지한다. 이러한 부처의 본원 설은 마침내 칭명염불 – 나무아미타불의 명호만 진실하게 염하면 정토에 태어난다는 의미로 중생과 아미타불 모든 부처님께 약속한 발원이다.

채국동리지절

현진 스님 청주 마야사 주지

국화 정원에 무서리가 눈처럼 내렸다.
음력으론 아직 10월인데도 아침 날씨는 초겨울마냥 쌀쌀하다.
늦가을 국화 색과 초겨울 무서리의 절묘한 조화가 환상적이라 사진으로 담았다.
자연이 연출하는 작품은 시시때때로 달라지기 때문에 가까이서 두고 보지 않으면
그 때를 만나기 쉽지 않다. 오늘은 무서리 내린 국화 밭 풍경이 뜻밖의 선물이 되었다.



가을에 국화 향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가을꽃이 참으로 많다지만
국화의 인기를 대신할 수는 없을 것이다. 찬 이슬이 내려도 고고하게 자신의 향기를
간직하고 있는 것은 오직 국화뿐이다.
그래서 일찍이 국화를 오상고절傲霜孤節이라 칭하며 사군자로 사랑해왔다.
무릉도원을 노래했던 시성詩聖 도연명도 국화를 아꼈던 대표적인 인물이다.
국화의 고운 빛깔을 '동리가색東籬佳色'이라 하는데 도연명의 글에서 따온 표현이다.
그가 동쪽 울 밑에 심은 국화를 따서 매년 차를 만들었는데 그 빛이 아름다웠다는 것에서 유래했다.
이맘때쯤이면 '동리가색도'라 하여 국화그림의 화제畫題로 지금도 많이 애용한다.

채국동리하採菊東籬下 유연견남산悠然見南山
동쪽 울타리 아래서 국화를 따며
한가로이 남산을 바라보노라

해질 무렵에 국화를 따다가 석양이 아름다운 앞산을 바라보며 전원田園의 일상에 감사하고 있다.
욕심 한 자락 내려놓고 유유자적의 삶을 사는 은둔자의 마음이 느껴진다.
이러한 삶을 옛 사람들은 무척 동경했을 것이다.
조선 화가들이 가장 많이 주문 받은 인물화가 도연명이란다.
'쌀 닷 말 녹봉 타 먹자고 머저리 같은 관리들에게 머리를 조아릴 수 없다'며
벼슬자리를 내 던진 뒤 '나 돌아가리라'는 귀거래사를 부르며 시골로 내려간 그의 기개는
조선 선비들에게 일종의 '로망'이었을 것이다. 처자식 걱정으로 귀거래사를 감행하고 싶어도
감행하지 못하는 현실이었을 테니까.
어쨌거나 도연명의 국화 사랑으로 인하여 후대의 시인묵객들이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였는데,
겸재 정선 또한 그의 두 폭 부채에 '채국동리'와 '유연견남산'을 각각 인용해
화제로 쓴 작품을 남겼다. 경주 강동면의 운곡서원을 방문했을 때
유연정悠然亭과 마주했던 기억이 있다. 역시 도연명의 글귀에서 따온 정자 이름이었던 것이다.
어디 이뿐인가. 가을 편지를 적을 때 서두에 '채국동리지절採菊東籬之節'로 시작하는
편지의 정형문구도 그의 영향력이다.

지난해 처음 뜰 앞에 국화를 심고
올해는 또 소나무를 심었네
산승이 화초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색즉시공을 알게 함이라네

청허집淸虛集에 실려 있는 서산대사의 게송이다.
아마 스님도 도연명을 존경하고 흠모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도연명이 거처하던 초가의 풍경처럼 소나무 한 그루와 국화를 심었을 것이다.
나도 지난해에 국화를 심었고 올해는 소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맘먹고 교육관 옆의 화단을 고치기로 작정하고 인부들을 불러
사흘 동안 그 일을 마무리했다. 마당 한가운데 놓인 화단이 답답하고 복잡하기도 하여
잔디광장으로 만들어 볼 생각에서 시작한 일이었다.
그 과정에서 소나무 한 그루를 새로이 심었는데 마당의 품격이 달라졌다.





꽃과 나무로 꽉 차 있던 화단을 비우고 나니 공간이 넓어지고 고요가 되살아났다.
여백이 주는 효과다. 이제 이곳에는 사람도 쉴 수 있고, 물건도 놓을 수 있다.
비었으나 결코 비어있지 않는 공간인 것이다. 따라서 텅 비어 놓았기 때문에
무엇이든 활용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것이 색즉시공의 도리 아니겠는가.
국화가 피었다 지지만 아주 없어진 것이 아니듯 허상에 집착하지 않을 때 삶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가끔 도연명이 사랑했던 국화는 어떤 품종일까를 상상해본다.
꽃을 따서 차를 만들었으니 소국小菊종류는 아니었을까. 그러나 그게 무슨 상관이겠는가.
꽃을 좋아하고 그 꽃을 통해 세상 시름을 위로 받았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을.



11월 5일 초하루법회



11월 7일 천년의 향기 7차



11월 15일 성보박물관 기공식



11월 15일 동안거 결제

법주사 솔향기 다도회 회원모집

법주사에서는 문화의 꽃이라 칭송되는
다도회의 회원을 모집합니다.
뜻있는 신도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연락처 : 010-5498-5546 (회장)
010-7400-1388 (총무)

법주사 합창단원 모집

불심이 있고 불법홍포에 관심이 있으신 분
"함께해요"

연락처 : 010-5262-0871 (단장)
010-4019-2033 (총무)

2021. 12 법주사 행사일정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음 10.27	2 28	3 29	4 11.1 초하루 신중기도입재 보현회 법회 어린이법회
5 2	6 3 신중기도회향 다도반 법회	7 4 합창단 법회	8 5	9 6	10 7	11 8 약사재일 어린이법회
12 9	13 10	14 11	15 12	16 13	17 14	18 15 보름 어린이법회
19 16 미륵재일철야기도	20 17 다도반 법회	21 18 지장재일 지장회법회	22 19 동지(00:59)	23 20	24 21	25 22 어린이법회 크리스마스
26 23	27 24 관음재일 관음회법회	28 25	29 26	30 27 법주회 법회	31 28	

■ **초 하 루 차량운행** : 청주지역 – 체육관 앞 오전 7시 30분, 8시 30분 / 대전지역 – 선샤인호텔 앞 오전 8시 10분
■ **미륵재일 차량운행** : 청주지역 – 체육관 앞 오후 3시 / 대전지역 – 선샤인호텔 앞 오후 2시 30분
■ **지장재일 차량운행** : 청주지역 – 체육관 앞 오전 8시

동안거 백일기도

법주사에서는 스님들의 겨울 공부기간 동안인 동안거冬安居를 맞이하여
100일기도를 봉행합니다. 선방에서 스님들이 겨울 한철 동안
화두 타파를 위해 정진하듯 불자들도 이 기간에 원력을 세워
정진한다면 개인의 신행을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발원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가족의 건강과 소원성취를 위해 봉행하는 동안거 특별기도에
많은 관심과 접수를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불기 2565년 **11**월 **19**일(음 10월 15일)
■ **장　　소** : 대웅보전
■ **동 참 금** : 백일기도 **20**만원
■ **동참계좌** : 농협 **403020 - 51 - 010482** (예금주 : 법주사)
■ **문의 및 접수** : 원주실 (043)543-4755

운맞이 일년기도

귀의 삼보하옵고, 2022년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불자님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충만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대웅보전에서 새해 운맞이 일년 기도를
봉행할 예정이오니 두루 동참하시어 가족의 건강과 소원성취 이루십시오.

■ **입　　재** : 불기 2566(2022)년 **1**월　**1**일(음 11월 29일) 토요일
■ **회　　향** : 불기 2566(2022)년 **12**월 **31**일(음 12월　9일) 토요일
■ **동 참 금** : **30**만원
■ **동참계좌** : 농협 **403020 - 51 - 010482** (예금주 : 법주사)
■ **문의 및 접수** : 원주실 (043)543-4755

삼재풀이

삼재가 들면 모든 일에 장애가 생긴다고 하여 이를 막기 위해 삼재불공을 올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동지를 맞이하여 법주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한 해의 안녕을 기원하는 지극한 마음과 정성으로 기도를 봉행하니 적극 동참하시기를 축원 드립니다.

■ **일　　시** : 불기 2566년 **2**월 **4**일(음 1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
■ **동 참 금** : 1인 **3**만원(기도비,부적 포함) 오곡비 **1**만원
■ **준 비 물** : 속옷 1벌(착용한 것도 가능)
※ 원숭이띠, 쥐띠, 용띠는 들삼재입니다.

명부전 천일기도 봉행

《지장경》에 의하면 한 번의 49재를 봉행하여도 산 자와 영가 모두에게 무량한 공덕이 아닐 수가 없다 하였습니다. "천일의 천도"야말로 희유한 기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뜻깊은 조상영가 천도기도에 많이 동참하시어 가내의 모든 권속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삼세선망 부모일체 영가님과 수자령영가가 극락세계에 왕생하고 나아가 성불의 인연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 **입　　재** : 불기 2565년 **8**월 **22**일(음력 7월 15일) 일요일부터
■ **동　참　금** : 천일기도 **50**만원
■ **동 참 계 좌** : 농협 **403020 - 51 - 010482** (예금주 : 법주사)
■ **문의 및 접수** : 원주실 (043)543-4755
※ 천일기도 중 100일마다 천도재를 봉행합니다.(별도신청)

약사여래불(원불) 모시는 분 천일기도 올려드립니다





■ **동참금** : 108만원
■ **동참계좌** : 농협 351-1124-3093-43
법주사

법주사 광명진언 기도

법주사에서는 보물 1360호인 법주사 비로자나부처님전에 지극 정성으로 광명진언기도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불자님들께서도 자기 자신과 주위를 모두 밝히고 맑힐 수 있는 광명진언기도에 동참하셔서 뜻 하시는바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 **일　시** : 2021년 **12**월 **4**일(음 11월 1일)
토요일 **14:00~15:00**시 (매월 첫째주 토요일)
■ **동참금** : **2**만원

신묘장구대다라니경 독송 기도

"모든 공덕을 다 갖추고 있다"라는 다라니 중 "신비하고 미묘한 공덕을 갖춘 위대한 다라니인 신묘장구대다라니를 통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도 얻고 건강과 행복도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일　시** : 2021년 **12**월 **18**일(음 11월 15일)
토요일 **14:00~15:00**시 (매월 셋째주 토요일)
■ **동참금** : **2**만원　　■ **장　소** : 법주사 대웅보전

알기쉽고 재미있는 교리강좌를 개설합니다

■ **일　시**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낮 12:30분 ~ 01:30분** 1시간
■ **장　소** : 법주사 강의실
■ **내　용** : 경전에 근거한 교리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 **대　상** : 법주사 불자라면 누구나
■ **강　사** : 법주사 교무국장 두진스님
■ **참가비** : 무료

